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인문정신과 지식재산

거를, 철학은 미래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멋스럽게 장식하려는 무늬와 같다. 같은 표현이라도 그럴듯하게 별명을 지어 불러야 여유가 생기고 실감도 그만큼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는 분노의 감정을 달래 준다’는 괴테의 말이나, ‘시가지흥(詩可以興) 시가지군(詩可以群)’이라는 논어의 구절도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에 취해 흥얼거리는 거대한 보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흥기(興氣)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역사는 지난 일을 반복하여 반면교사(反面教師)의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문학이 ‘왜’를 감지한다면 역사는 ‘어떻게’를 지향한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역사는 인구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결과를 강조하지만, 작가는 왜 하필 그랬을까 하고 그 이유에 주목한다.

이와는 달리 철학은 미래를 전망한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려는 노력이 철학의 밑거름이다. 그래서 칸트도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하는 것’을 배우라고 강조한다.

인문학의 덕목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지혜로운 인격체가 되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안목이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흔히 BCD가운데 C가 펼쳐지는 ‘경우의 수’가 인생이라고 한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 놓인 선택(Choice)에 의해 삶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선택을 잘하려면 통찰력과 심미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명한 선택은 이 두 힘을 바탕으로 하는 독창성에서 빛을 발한다. 산업사회에서 독창성은 흔히 지식재산으로 상품화되기 마련이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이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지만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었다. 지식이 곧 재산이 되며, 지식재산 강국이 되어야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실업자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창의력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의 확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세계는 영도 전쟁이 아니라 누가 지식재산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개발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문학은 지혜라는 양분을 통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낳게 하는 화수분과 같은 것이다. 인문학을 흘려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화수분을 잘 활용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 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社說

2野의 ‘경제 정책’ 경쟁, 민생 주름살 펴지나

여소야대 국면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경제 정당’이 되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섰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등 바빠지게 움직이고 있다.

더민주의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카드도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실업자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반대만 하는 야당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하는 중도 실용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어제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유망직종 발굴과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안 대표는 또 혁신적인 청년창업 지원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 야당이 앞다퉀 민생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시안에 따라 조력기로 했더니 반가운 일이다. 물론 각자 지지세를 넓혀 향후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로 생활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진다면 좋은 정치 아니겠는가.

두 정당은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실천 경쟁에도 힘써야 한다. 더민주로서는 옛 ‘땃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밝힌 만큼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당 또한 지금 더민주가 곱씹고 있는 회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각오를 다졌을 줄 안다.

두 야당은 산적한 경제 문제 해법도 출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아يا말로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든 국민들의 깊은 뜻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에 손 떼려는 정부

정부가 국비 270억 원을 들여 진도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남도와 진도군에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옳은 소리만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나다.

원불교 3대 총법회인 대산총사는 “진리가 2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큰 복을 주기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목적을 향해 정진없이 뛰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돈은 인생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내일 내가 이 세상과 하지 할지 모라 하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못가지고 가는 재산의 공덕보다 오늘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큼니다.

천국과 극락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대각을 느끼시는 것이 극락이요, 천국입니다.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극락을 느끼는 4월 되시기를 심축합니다.

는 국책사업이다. 팽목항 인근에 희생자 추모공원, 해양 훈련 및 세미나 시설 등을 조성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의식 교육을 고취하게 된다.

이처럼 국민해양 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국가 차원의 추모 사업이다. 당연히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 36조에도 건립되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해수부가 지난 3월 말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중 일부인 42억 5200만 원을 전남도와 진도군에 내려보내면서 ‘안전관 건립 이후 매년 25억 원의 운영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 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건립될 것을 받아들여 까르띠에 대신 몇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었다. 얼마 전 국민의당 총선 당선인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 안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우연히 손목을 보니 그 시계가 눈에 띄었다. “김종인 대표도 시계로 말씀이었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었더니 소탈한 웃음과 함께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안 대표의 차림새가 워낙 소박하기 도 했고, 더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시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은 남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계는 기호품이기도 하다. 누가 어떤 시계를 차든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김 대표와 안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썩어 가는 다리에 직접 입을 대고 고통을 빨아 낸 중국의 장수가 생각났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일자리가 없어 한숨 쉬는 청년을 위해 조금만 더 디테일에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 대표의 차림새가 워낙 소박하기도 했고, 더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시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은 남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계는 기호품이기도 하다. 누가 어떤 시계를 차든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김 대표와 안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썩어 가는 다리에 직접 입을 대고 고통을 빨아 낸 중국의 장수가 생각났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일자리가 없어 한숨 쉬는 청년을 위해 조금만 더 디테일에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 대표의 차림새가 워낙 소박하기도 했고, 더 묻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시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은 남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계는 기호품이기도 하다. 누가 어떤 시계를 차든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김 대표와 안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썩어 가는 다리에 직접 입을 대고 고통을 빨아 낸 중국의 장수가 생각났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일자리가 없어 한숨 쉬는 청년을 위해 조금만 더 디테일에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종교칼럼

모든 벽은 문이다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였으며 중국에는 그 의문을 풀기위해 모든 세상사를 읽고 임정삼매에 드셨습니다.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자신을 후원해 주시는 아버님마저 대종사께서 20세 되시던 해에 돌아가시니 집안 살림 걱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깜깜한 벽에서 문은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26세 되시던 1916년 4월 28일 드디어 그 벽에서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벽이 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도를 깨달으신 후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뚜렷한 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다사다난한 인간사가 한 생각을 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벽이 단절이라면 문은 소통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은 벽이 아닙니다. 벽은 안과 밖을 구별하여 주는 것인데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안과 밖이 없습니다. 이것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마술을 부려 벽에 문을 만듭니다. 모든 벽에서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전화를 통해 문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벽에 문을 만드십니다. 대종사님은 대각을 통해 모든 벽에 문을 만듭니다. 부활과 대각은 어떤 벽은 벽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종의 벽, 사상의 벽, 남녀의 벽들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광주민심의 벽에 어떤 문을 만들고자 했습니까? “광주민심이 저를 버리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은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출구의 문입니다.

벽에서 문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모든 벽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마음의 치매는 많은 생각들을 놓지 못하고 비교하고 상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30m나 되는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할 때 생각이 많으면 뛰어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내려야 성공할 수 있

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누구 덕 볼 생각이 없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는 정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옳은 소리만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나다.

원불교 3대 총법회인 대산총사는 “진리가 2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큰 복을 주기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목적을 향해 정진없이 뛰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돈은 인생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내일 내가 이 세상과 하지 할지 모라 하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못가지고 가는 재산의 공덕보다 오늘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큼니다.

천국과 극락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대각을 느끼시는 것이 극락이요, 천국입니다.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극락을 느끼는 4월 되시기를 심축합니다.

기 고

오케스트라 교육 통한 문화 복지를 꿈꾸며



김정선 사회음악교육전문가·음악학 박사

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면서 힘들어도 놓지 못했던 큰 이유는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A는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비록 공부 못하는 것지만 음악은 잘 한다고 인정받았고 이후 음악선생님이 되고자 사범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어릴 적 사내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리핀의 외갓집에서 외조모의 손에 자라며 얻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B. 항상 후드티를 입고 모자 속에 숨어 있던 아이는 연주회 무대에 오르기 위해 처음으로 모자를 벗기 시작한 이후 예쁜 단발머리를 드러내며 상처를 극복하기도 했다.

껄렁껄렁 반항심 가득했던 사춘기에 악기를 시작한 이후 꿈이 생겼으며 밝아진 표정과 반듯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 보육원에서 자라며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이 가장 행복하다는 친구 등 한 명 한 명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오케스트라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교육 사업에 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연습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단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행정담당자와 교육을 담당하는 음악감독과 강사, 단원과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잘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참여자는 대부분 초등 3학년~6학년 위주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악기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일반 가정에서 영아·수학 학원비를 지출하고 나면, 개인 레슨으로 악기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

제 아무리 떠들썩하게 창의력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부르짖어도 성적 위주 낡은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일류대 지향과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편일률적인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그 어떠한 변혁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파라과이 어느 쓰레기 매립장 마을에서 기업을 정신으로 무장한 단 한 명의 음

악선생님의 헌신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악기를 구할 돈이 없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강통과 드럼통으로 악기를 만들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악기 교육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악기 만들기에 좋은 강통을 찾기 시작했다. 재활용 쓰레기는 훌륭한 악기 재료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다. 쓰레기가득하고 냄새 진동하는 마을 곳곳에 향기로움 음악이 울려 퍼졌다.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독창성을 지닌 문화 콘텐트로 자리 잡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은 꿈을 갖게 됐다. 지금은 각국 초청으로 해외 순회공연을 다니며 연주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도전 정신과 열린 마음을 가진 단 한 명의 혁신가가 오케스트라라는 음악 도구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에 변혁을 일으킨 감동적인 사례다.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 광주에서도 파라과이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젠가 도청 광장 야외무대의 멋진 조명 아래에서 남녀노소 지역 주민들이 악기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와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누구나 연주자로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축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날을 꿈꿔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